

青銅器時代 및 初期鉄器時代の 住居

張慶浩

문화재연구소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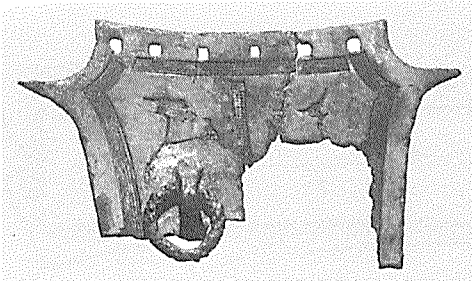
Report/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Prehistoric Age
by Chang, Kyung-Ho

1. 青銅器 時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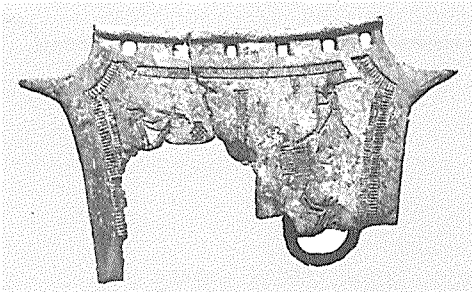
○ 時代概要

신석기시대를 뒤이어 각종 도구나
 儀器가 금속류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시대를 청동기시대라고
 하며 이 시대에는 주로 純銅이나
 청동제를 사용하였다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 시대를 뒤이어 철을
 사용하는 시대로 단계가 바뀌는데 이
 시기를 철기시대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보면 청동기를 인류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B.C. 4,500에서
 B.C. 4,000인데 그 예로서 Iran 의
 Tepe Sialk 에서 銅을 두드려서 만든
 (이것을 冷銅法이라 함) 도구가
 쓰여졌음을 발견하였고 B.C.
 4,000경에 鑄成된 도기가
 발견되었다”한다. 이러한
 鑄銅術은 서 Irag 의 Ubaid
 純銅文化에서도 나타난다.²⁾ 현재 가장
 오랜 청동제품의 예로는 주석
 합금제로서 B.C. 3,700년쯤의
 이집트 피라밋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³⁾
 이렇게 하여 대체로 B.C. 3,000
 B.C. 2,000년 사이에는 세계의 고대
 문화가 발달된 곳에서는 청동기가 널리
 사용되게 되고 중국에서도
 龍山文化말기(夏代)에 B.C.
 2,000년 전후로 청동기를 사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청동기문화는 과거
 일제시의 학자들은 그 존재를 부인하고
 신석기시대 이후 대륙으로부터 철기와
 함께 문명인들이 들여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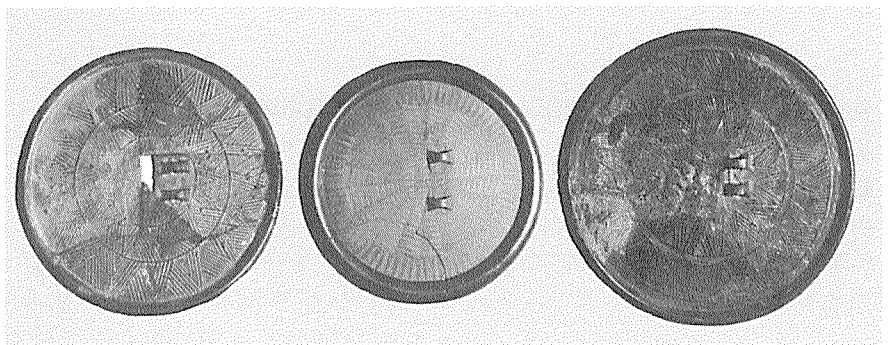
청동기시대가 없이 바로 철기시대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日人들이 우리민족에게
 열등의식을 넣기 위한 동기부여의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청동기문화에 대한 발표는 광복 이후
 우리나라 남북한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있었다.⁴⁾ 그 대표적인
 유적으로서는 북한의 咸北 會寧 五洞,
 平北 江界市 公貴洞, 同 의주군
 美松里 및 영변군 細竹里, 平南
 勝湖郡 金灘里, 황해도 봉산군
 智塔里 上層 등지가 있고 남한에는
 경기도 여주군 欣岩里, 同 파주군
 交河里 및 玉石里, 서울시 강동구
 可樂洞, 충남 부여군 松菊里, 강릉시
 浦南洞 등이 있다.
 이 시대의 문화 특성을 概述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압록강 이남에서 최초로
 청동기를 사용한 것은 고구려족의
 전신인 濊貊族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들은 遼東以東 지역의
 주인이었으며 이들은 채색토기와
 紅陶, 그리고 청동검, 청동도끼, 반달
 돌칼을 동반하는 농경구와 돼지등의
 가축을 키웠음을 출토된 유물로서 알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유적은 북한의
 新岩里 2층 유적인데 여기서
 청동기와 같이 출토되는 유물의 탄소
 측정 년대는 B.C. 1,280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만든것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의 開始를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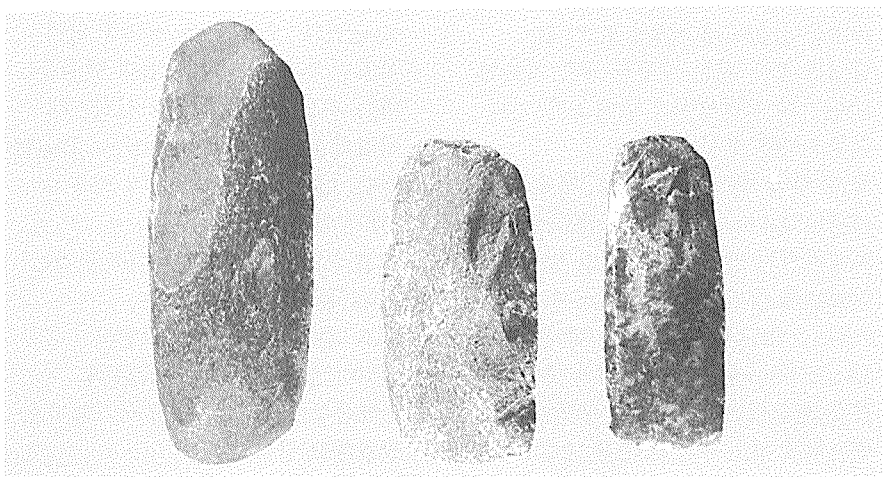
박물관소장 農耕文 青銅器片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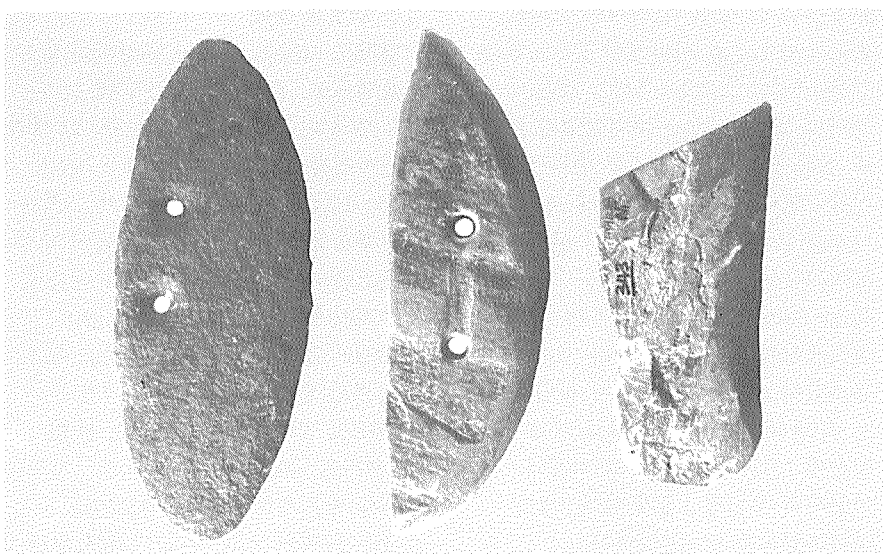
▲ 無文土器



▲ 青銅器 銅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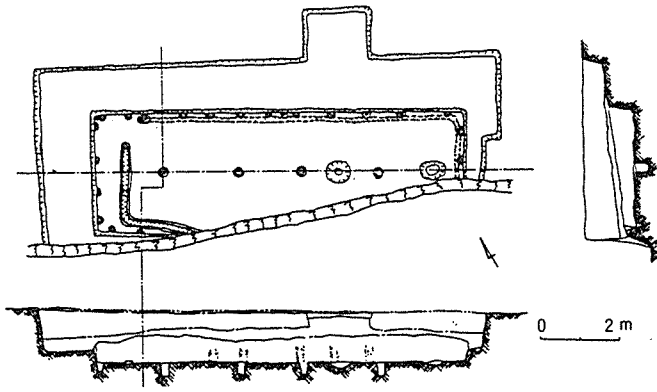


▲ 石斧(돌도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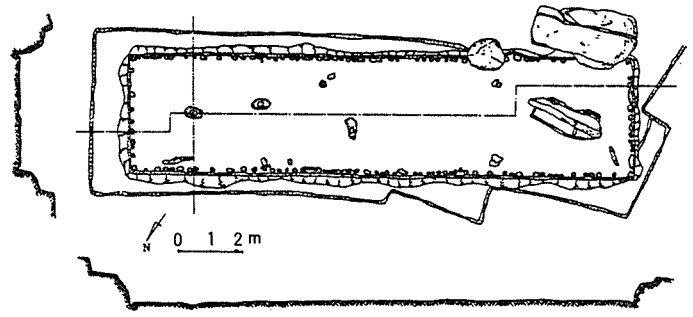


▲ 半月形刃 반달칼

학계에서는 대체로 B.C. 1,00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上記한 예맥족의 사용시기 上限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 청동기가 널리 발달되는 시대는 B.C. 300년 즉 초기 철기 시대로 보고 있다.⁵⁾ 이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는 하천이나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낮은 구릉지대의 경사면에 몇동이나 몇십동의 취락을 형성하고 살았으며 충남 海美나 扶餘 송국리에서 노출된 유구와 같이 평면이 원형으로 된 것도 있으나 대체로 방형 또는 장방형의 반움집이며 경기도 파주군에서 발견 조사된 것과같이 길이가 9.5m에서 15.7m되는 긴 집자리도 있었다. 또 爐址도 前代에 중앙 1개에서 2개로 된다. 이 시기의 생활은 유물이나 집자리의 평면형태 그리고 규모로 보아서 농경, 어로, 가축기르기 등을 발전시켰던 때로 추측되며 경작된 곡식은 벼, 보리, 조, 피, 수수, 콩 등의 다양한 종류이고 벼도 여주 혼암리와 부여 송국리, 북한의 평양 근처 호남리 등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국에서 쌀이 생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농경무늬 청동기편에는 이 시대의 농경모습을 잘 나타낸다.⁶⁾ 이 시대에 사용한 용기의 특징으로는 多鈕細文鏡이라는 청동제 거울, 단추형장식구, 동검, 銅斧 등의 청동기와 석기로써 도끼, 화살촉, 돌칼, 반달형칼 그리고 礮石(갈돌),



▲ 경기도 交河里 1號



▲ 玉石里 住居址

돌자귀(有殷石斧→有溝石斧) 등이고 토기로는 彩文토기, 팽이토기, 붉은토기, 목긴항아리, 계란형甕, 화분형토기 등이 있다. 이들 청동기시대의 중요 유적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京畿道 交河里遺蹟

파주군 금촌에서 서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있는 장수산 동쪽 기슭에 10여기의 지석묘군과 함께 1965년에 발굴조사된 것이다. 제1호주거지는 남서벽이 6.25m에 거의 파괴되었으나 자연층인 風化岩層을 파내려가서 만든 움집터임을 알 수 있었는데 평면이 장방형으로서 長邊이 9.5m, 短邊이 3.2m, 움 깊이가 35cm~70cm이다. 이 집터의 중앙 長軸線上에는 4개의 기둥구멍이 뚜렷하게 남았는데 柱間은 중앙간이 1.6m, 그 양측간이 2.0m 이었고 끝쪽에 놓인 柱孔과 벽과의 거리는 동북에서 1.7m 서남에서 2.0m였다. 기둥 구멍의 크기는 직경이 18cm에 깊이가 30cm~35cm 파져있었다 한다. 또 집터 벽선을 따라 내부 바닥에도 기둥구멍이 나란히 있었는데 크기가 17cm×12cm의 모점은 각형 평면에 깊이가 7~15cm, 간격은 70cm~80cm였다고 한다.⁷⁾ 이 집터에서는 많은 재와 숯이 바닥에 깔려있어 화재로 소멸된 것 같았다.⁸⁾ 또 火爐터는 서남쪽의 벽과 기둥 중간에 1개와 그 다음간의 기둥과 기둥사이 중간에 1개가 있어 2개를 구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玉石理遺蹟

파주군 월농면 덕음리 일명 옥석리라는 마을 뒤 구릉상에 10여기의 북방식 支石墓와 함께 1965년에 조사된 것이다. 움터는 장방형으로서 동서 길이가 15.7m, 남북 폭이 9.7m로 긴 움집터였는데 그 바닥의 깊이는 동벽에서 1.0m 정도이고 서벽에서 40cm였다. 또 바닥은 진흙을 얇게 깔았던 흔적이 있었고 집터 벽선을 따라 기둥구멍의 배열이 있었는데 직경이 7~15cm 깊이가 15~20cm였다 한다. 爐址는 집터 동쪽에 치우쳐 2개가 있었고 바닥에서 無文土器 瓦片과 磨製石劍(돌칼), 石鏃(돌화살촉), 紡錘車, 碾石(갈돌), 砥石(숫돌) 등이 있었는데, 돌화살촉과 石器의 반제품등이 놓여 마치 석기제작소 같았다고 한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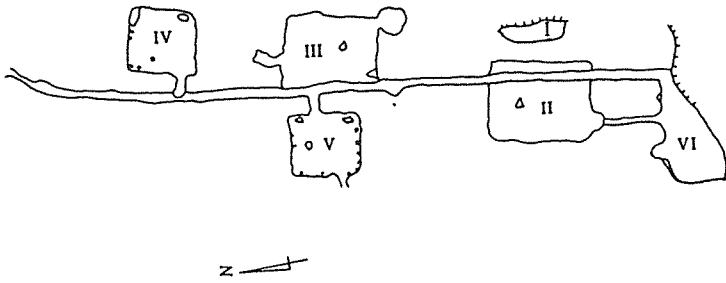
○ 欣岩里 遺蹟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에 있는 유적으로 1972년~1977년에 조사되었는데(서울대 박물관) 15개의 집자리를 발견 조사하였다.¹⁰⁾ 제12, 13, 14호의 주거지 조사에서 탄화곡물이 나오고 또 목재등이 나와서 탄소측정년대를 측정한 결과 제12호 주거지에서 B.C. 7세기와 B.C. 13세기(한국에서 측정) 그리고 B.C. 10세기(일본에서 측정)로 나왔고 제13호 및 14호의 주거지는 B.C. 3세기로 나왔다 한다.¹¹⁾ 이들 주거지는 모두 산의 경사면을 낮은 쪽에서 부터 파 들어가서 생긴 평지를 이용한 半壑穴式 주거지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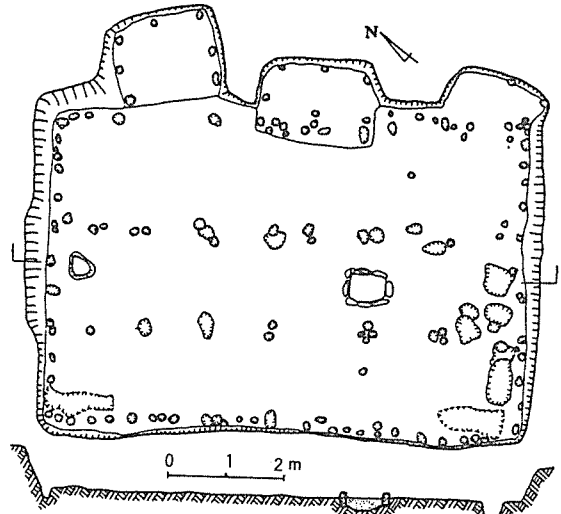
평면이 모두 긴 장방형으로서 제12호가 동서 9.7m×남북 3.7m이고 제13호는 長 7m×幅 2.8m 제14호가 長 10m×幅 4.2m였다고 한다. 내부시설로서 제12호에서는 3개의 노지와 저장시설이 집터 구석 벽쪽에 배열되어 있었으나 제13호나 14호에서는 이런것을 볼수 없어 이러한 시설을 집 밖에 시설하였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 제13호와 14호 주거지에서는 폭 약 60cm되는 간막이 벽이 발견됐다고 보고 되었다. 이러한 평면을 볼 때 이 집은 서까래가 지면에서 완전히 떨어져 벽위에 올려졌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 虎谷洞遺蹟

함경북도 무산군 두만강 남안과 성주의 연안 지대에서 발견된 것이다. 보고에 의하면 1959년부터 3년간에 걸쳐 조사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발견된 주거지 수는 약 50개 정도라고 하나 이것도 이 유적지의 넓이로 보아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한다. 주거지는 서로 중복되어 있었던 것이 많았는데 이중 제8호 주거지는 평면이 장방형으로서 남북 11.5m, 동서 6.2m이며 집터 바닥의 깊이는 약 1m 내외였다. 집자리 內 동서벽 가까이 7개의 礎石이 서로 대칭되는 위치에 놓여있고 중앙에는 기둥이 탄화된 숯으로서 수직으로 세워진채 나타났다고 한다. 또 불에 탄 재로 보아서 새나 짚으로 지붕이나 벽면을 엮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화덕은 집자리 북쪽에 치우친 중앙에 있었고 출입시설은



▲ 公量里 配置圖 (김정기 住宅公社誌에서 전재)



▲ 五洞 住居8號 (住宅公社誌에서 전재)

특이하게 북벽쪽에 있었다. 바닥에서는 많은 토기편과 석기들이 있었고 특히 사람모양과 돼지모양의 土偶가 있었다고 한다.¹²⁾

○ 會寧五洞遺蹟

함북 회령군의 두만강 南岸小平野에 있는 유적으로 8개의 집자리중에 5개가 유존상태가 좋았다. 이중 제8호 주거지는 그 평면이 장방형으로 長邊이 8.4m 이고 短邊이 6.5m, 깊이는 75cm~140cm인데 동북벽에 龕室과 같은 방이 2개가 있었고 출입구는 동측에 있었다. 이 돌출부는 식량이나 생활용구를 저장 격납하는 시설인 듯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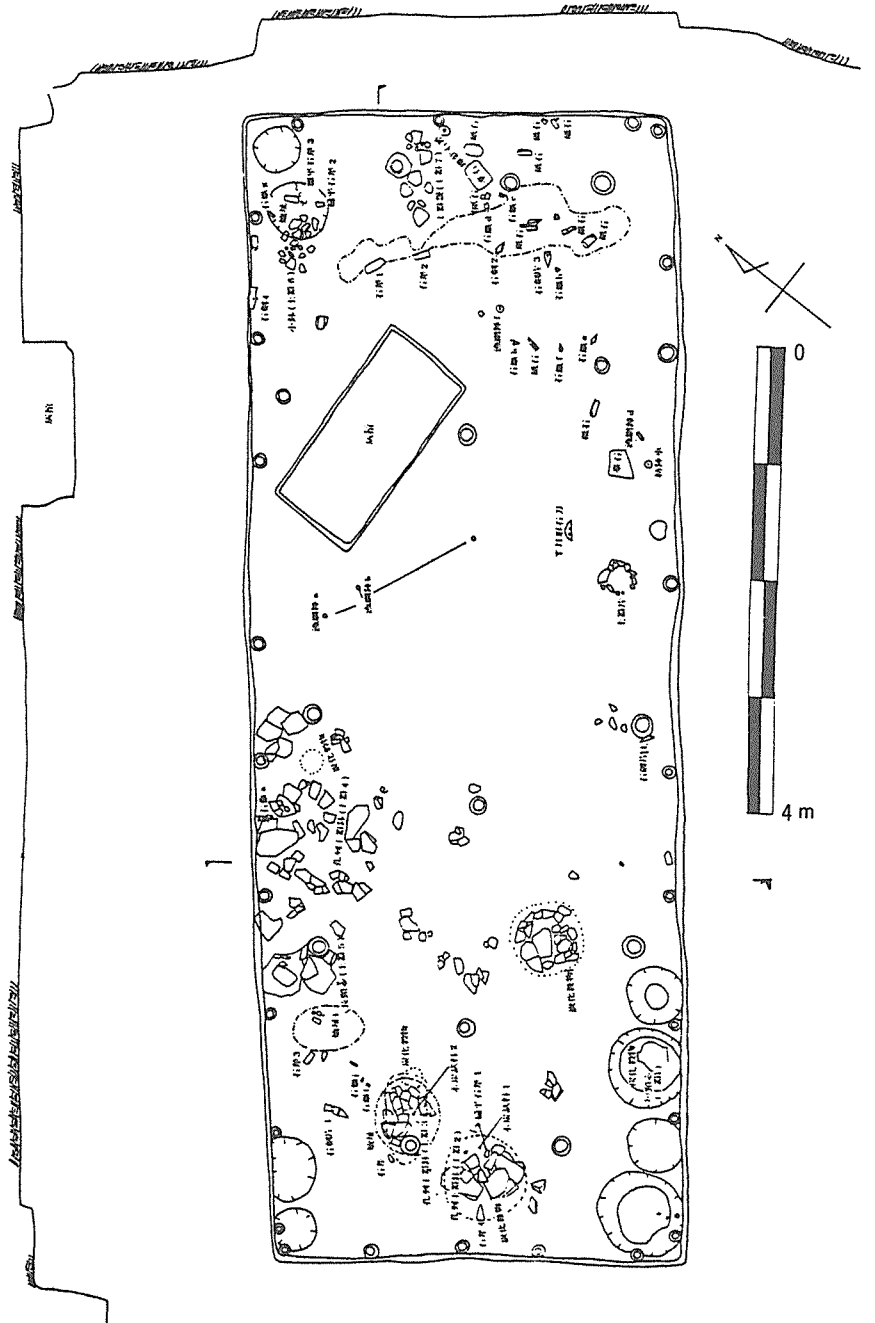
집자리의 바닥은 진흙을 깔고 다졌으며 爐는 남쪽에 치우쳐 장방형 평면을 하고 그 주위에 돌을 돌리고 있다. 또 이 爐址 반대편 서북벽 가까이에 붉게 탄 진흙으로 싹뚝 모양의 시설이 있었는데 이 역시 爐址였다.

○ 公貴里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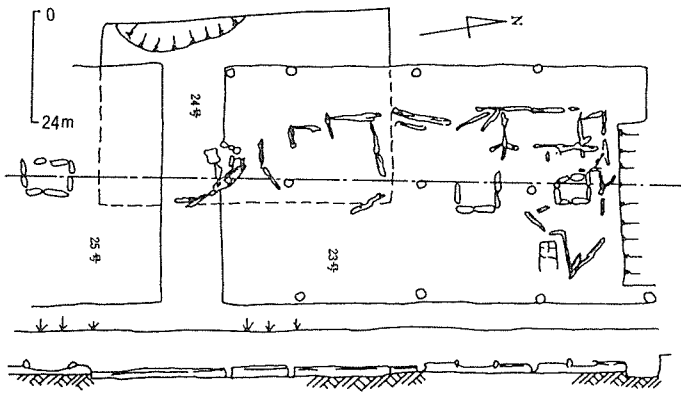
평북 강계에 있는 유적으로 특이한 점은 집자리 6개가 남북으로 축을 이루어 폭 1m 정도의 직선으로 패인 통로로서 연결이 되어있다. 이들의 집자리는 평면이 방형이나 장방형에 가까웠고 바닥은 점질토로 같아졌다. 또 爐는 중앙이 아닌 한편 벽쪽에 치우쳐 있었다 한다.

○ 細竹里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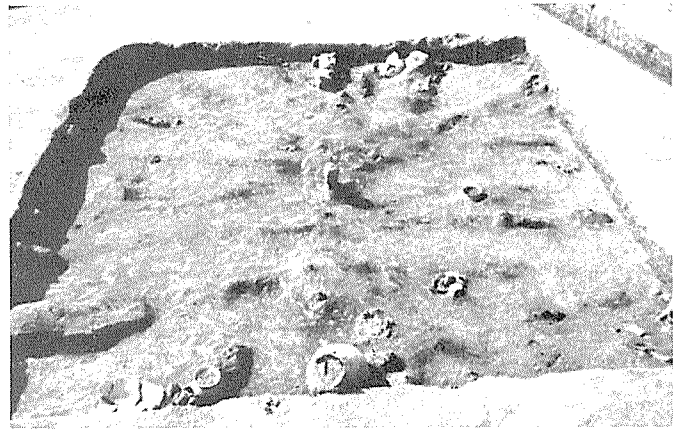
평북 영변군의 청천강연안에 있는 이 유적에는 1962~63년 사이 27개의 움집터가 발견됐다.¹⁴⁾



▲ 欣岩里 住居址 12號 (서울대 77년도 보고서에서 전재)



▲ 細竹里 23號 (住宅公社誌에서 전제)



▲ 松菊里 住居址

이중 제27호 주거지는 한변이 3.7m의 정방형 터로서 깊이 70cm의 바닥에는 기둥구멍이 없었고 爐는 북벽에 거의 접하여 있었다. 또 바닥에는 전면적으로 재가 덮이고 벽을 따라서 기둥과 서까래를 겸한 지붕 架構材가 탄화된채 중앙을 향하여 바닥에 남아 있었다. 이러한 가구재는 제23호 주거지에서도 노출되었는데 이 집자리는 동서 5.1m×남북 9.3m의 장방형 평면으로 바닥의 깊이는 20cm 정도이고 진흙과 석회를 혼합하여 굳혔고 바닥에는 장방향으로 중앙과 서쪽벽선을 따라 기둥구멍이 있다. 실측도로 보아 이 움집은 처마 도리를 사용한 지붕구조를 가진듯하며 서까래가 벽위의 처마도리위에 얹혀진 것으로 믿어진다.

○ 松菊里遺蹟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표고 30m 내외의 낮은 구릉지대가 주위에 펼쳐지는 넓은 들(초촌들)을 남쪽으로 가로 질러 뻗어있는데 이곳에서는 청동기를 비롯하여 백제, 고려시대에 속하는 유적과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곳의 선사주거지는 1975년부터 1978년까지 4회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하여 19기의 움집터를 밝혀냈고 1985년에 다시 발굴하여 54지구 제5호 집자리와 제6호 집자리를 발굴조사한바 있다.¹⁶⁾ 이중 특히 5호 집자리로 方形에 가까운 평면인데 동서 長幅이 약 4.6m~4.8m이고 남북 短幅이 약 3.7m~4.15m가 되어 거의 正方形에 가깝다. 집터 바닥의 깊이는 약 35cm이며 집터 안에는 마치 지붕틀 구조를 평면으로 투사한 것 같이

용마루대와 여기에 의지하여 처마쪽으로 뻗은 서까래, 그리고 이 서까래 사이를 연결했던 중깃들이 바닥에서 탄화된 그대로 나타났다. 용마루대의 길이는 약 2m가 되었고 이 양단에서 서까래가 扇子形으로 붙여 걸리게 되었다. 서까래의 지름은 약 6~10cm이고 길이는 2~3m이며 중깃은 2~3cm이다. 이 집터의 주위에서는 수십개의 크고 작은 구멍들이 확인되었다. 서벽을 제외한 3면 벽을 따라 지름 10cm~15cm, 깊이 4~8cm의 구멍 20개가 있다. 또 바닥의 3귀에는 지름이 20~30cm이고 깊이가 10~20cm의 구멍이 있었다. 또 남쪽의 바깥에는 구멍들이 뚫렸고 벽면 중간 또는 어깨면 가까이에 땅속으로 경사지게 뚫린 것도 있었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은 숫돌, 돌화살촉, 반달 돌칼, 돌끌 등의 석기와 무문토기와 붉은간토기등이다. 이 유적의 시대는 B.C. 약 5세기로 추정하고 있다.¹⁶⁾

靑銅器時代 住居址의 特徵的 考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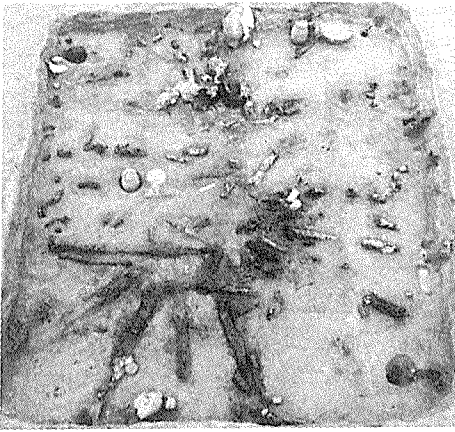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기술로서 이시대의 움집터는 前代에 비하여 평면이 대체로 方形 또는 장방형이 많았고 규모도 더 컸으며 바닥의 깊이도 좀 낮아지는 편이고 間壁이 생기고 또 기둥의 배열도 우진각 또는 까치구멍 지붕을 이룰 수 있는 기둥배열을 하였다. 또 지붕의 서까래는 경우에 따라 처마도리를 들어 지상을 떨어뜨려 올라온다. 또 출입구는 건물지 밖으로 돌출되어 만든다.¹⁷⁾ 바닥은 진흙등을 다지는 경우가 종종있고 爐址는 前代의 중앙부

1개에서 건물지 한쪽으로 치우쳐 2개 또는 3개가 있을 경우도 있는데 이중 한개는 벽에 근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벽에 근접하고 화덕은 중앙부에 있는것과도 기능을 달리하도록 나뉘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즉 주거지 내의 중앙에 위치한 것이 난방과 취사를 겸한 것이라면 벽면에 근접한 것은 취사를 주로 이용했거나 다른 常用의 용도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경우 연기를 벽 근처에서 밖으로 유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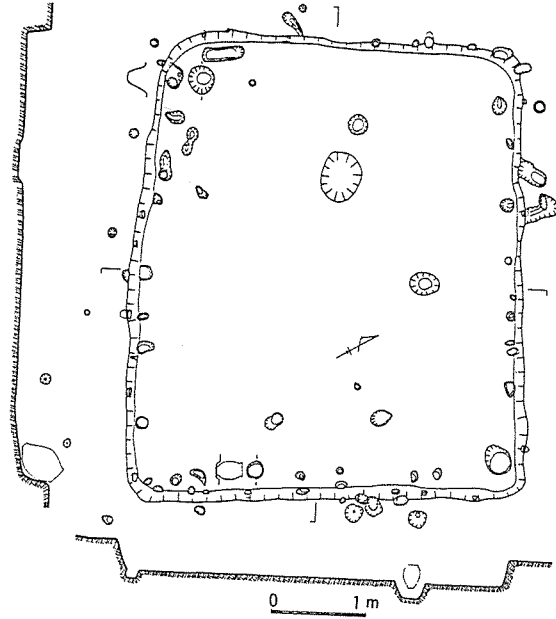
또 저장시설은 前代에 토기를 이용한 소규모의 시설은 보기 어렵고 전술한 五洞의 8호 주거지와 같이 벽쪽에 龕室을 두어 본격적인 저장시설을 두었거나 별도의 시설을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시대의 대가족과 농경 수확량을 보존할 시설이 필요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公貴里의 통로있는 주거군을 생각할 때 이 시기에는 대가족이 반드시 건물 1동만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한정된 개념에서 벗어나 능력이 있는 가족은 몇개의 건물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사회 질서를 이루는 빈부의 차와 계급형성이 생기게 되고 이에따라 취락형성과 생활공간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주거지 면적으로 보아 金正基선생이 조사 연구한 바에 의하면 별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10㎡ 단위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결혼한 부부 한쌍이 살수 있는 소요단위공간이라고 하여 가장 많은 20㎡에서 부부 한쌍과 자녀 2~3명 또는 노부모로서 4~5명의 생활 단위공간으로 해석하고



▲ 松菊里 住居址



松菊里 54-5號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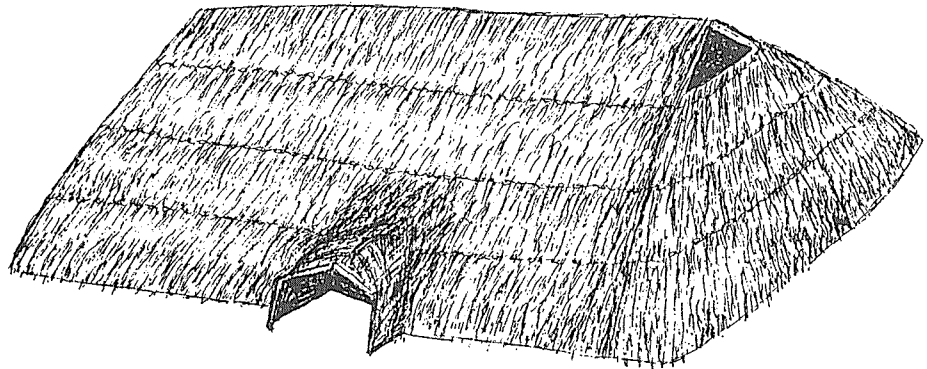
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가족제도를 연구하는데로 좋은 자료가 될 흥미로운 연구결과라 믿는다.
 또 이 시대에 기둥을 세우는 방법으로는 역시 埋込기초가 가장 많고 자연초석을 놓는 방법, 그냥 바닥에 세우는 방법등이 있다. 그러나 기둥의 배열과 架構의 특징에 대하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좀더 연구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

面積 과 類例																
面積 (m ²)	80	70	65	60	55	50	45	40	35	30	25	20	15	10	△ 10	計
例	2	3	3	5	3	8	1	5	0	5	4	11	4	3	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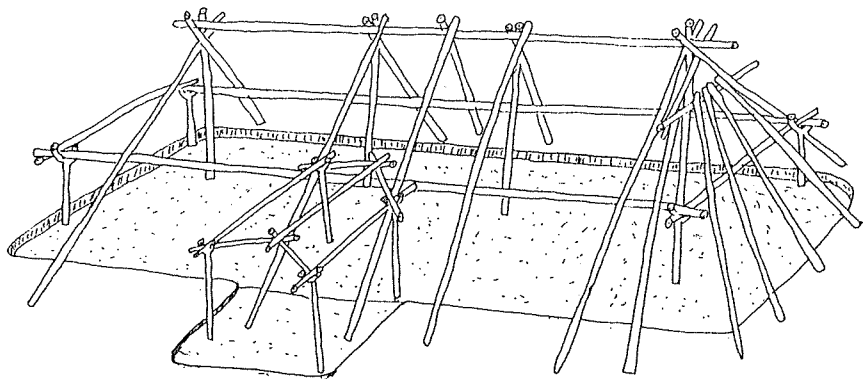
▲ 움집터 면적표 (김정기住宅公社誌 “韓國住宅의 어제와 오늘” 에서 전재)

□註□

- 1) Francis Celoria ARCHAEOLOGY BANTAN BOOKS Toronto, New York, London, 1974
- 2) 金元龍 : 韓國考古學概說, 서울一志社, 1987, p. 60
- 3) 前掲書
- 4) 前掲書 參照
- 5) 前掲書 p. 67
- 6) 韓炳三 : 「先史時代 農耕文青銅器에 對하여」, 〈考古美術〉 112호, 1971
- 7) 金正基 : 「韓國住居의 어제와 오늘」, 住宅公社, 1979년
- 8) 前掲書
- 9) 前掲書
- 10) 서울大學校 考古人類學叢刊(第 4~8冊) 欣岩里住居址
- 11) 前掲書 1
- 12) 金正基 前掲書
- 13) 前掲書
- 14) 前掲書
- 15) 國立中央博物館 : 松菊里,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18책, 1986
- 16) 前掲書
- 17) 金正基 前掲書



交河里 第1號 住居址 推定 復元圖 ▲



▲ 交河里 第1號 住居址 推定 復元 架構圖